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김광현이 14일(현지시간) 미 위스콘신주 밀워키의 밀러 파크에서 열린 2020 메이저리그(MLB) 밀워키와의 연속경기 1차전 1회 투구하고 있다. 김광현은 6이닝 3피안타 6K 무실점으로 호투하면서 0-0으로 경기가 이어지고 있다.

김광현 '완벽한 모습으로 컴백'

밀워키와의 원정경기서
선발 등판 7이닝 3볼넷
6탈삼진 무실점 역투
선발 5경기 평균자책점
0.33… 2위 해당 기록

'KK' 김광현(32·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완벽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김광현은 15일(한국시간)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의 밀러파크에서 열린 '2020 메이저리그(MLB)' 밀워키 브루어스와의 원정경기에 선발 등판, 7이닝 3피안타 3볼넷 6탈삼진 무실점 역투를 펼쳤다.

지난 2일 신시내티전에서 시즌 2승째를 거둔 이후 13일 만의 복귀전이었다.

김광현은 신장 경색으로 인한 복통에 지난 7일자로 부상자 명단에 올랐다. MLB 입성 첫 해 선발 투수로 입지를 굳히던 중 만난 뜻밖의 암초였다.

다시 마운드에 선 김광현은 한결 더 강해진 모습으로 마운드를 지배했다.

김광현은 3개의 피안타를 허용했지만 연속 안타는 철저히 막았다. 투수에게 가장 좋지 않다는 볼넷도 3개 뿐이었다. 좀처럼 위기를 자초하는 법이 없었다. 데뷔 후 최다 이닝과 최다 탈삼진 기록도 다시 썼다.

베이스볼 서번트에 따르면 김광현의 이날 최고 구속은 92.2마일(148.4㎞), 포심패스트볼 평균 구속은 89.9마일(144.68㎞)이 찍혔다. MLB에서 결코 빠르다고 할 수 없는 수치이지만 김광현은 안정된 제구와 주무기인 슬라이더를 앞세워 타자들을 돌려세웠다.

무실점 행진은 이날도 계속됐다. 7이닝을 보탠 김광현은 연속 비자책점 기록을 24이닝까지 늘렸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어보였던 평균자책점은 0.83에서 0.63으로 낮췄다. 타선의 지원을 받지 못해 승리를 차지하지 못했을 뿐, 김광현은 선발투수로서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다.

데뷔전에서 마무리 투수로 등판해 1이닝 2피안타 2실점으로 혼쭐이 났던 김광현은 익숙한 선발 투수의 옷을 입은 뒤 훨훨 날고 있다.

이날 포함 김광현의 선발 5경기 평균자책점은 0.33에 불과하다. ESPN은 "신인 투수의 선발 첫 5경기 평균자책점 0.33은 집계를 시작한 1913년 이후 양대리그 2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라고 소개했다. /뉴시스

박현경·김한별 '승전보'… 전북 골프 '승승장구'

현재까지 올 시즌에만 2승 수확

젊은 골퍼들의 활약으로 전북도가 골프 불모지에서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

15일 전북체육회(회장 정강선)에 따르면 전북 출신인 박현경 프로와 김한별 프로가 올해 한국 남·여 프로대회를 이끌고 있다.

전주 중산초와 익산 함열여중·고를 나온 박현경 프로는 지난 5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챔피언십에서 프로 첫 우승을 차지한 데 이어 KLPGA 투어 아이에스동서 부산오픈에서도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또한 전주 한들초와 서신중, 부안 백산고를 나온 김한별 프로도 올해 2승을 수확했다.

김 프로는 지난달 해지스골프 KPGA 오픈에서 생애 첫 우승을 차지한 이후 최근 막을 내린 신한동해오픈 대회에서도 우승을 차지했다.

이처럼 올해 최고의 기량을 뽐내고 있는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프로로 전향하기 전부터 전북 체육의 위상을 드높여 왔다는 것이다.

먼저 박현경은 송암배 아마추어선수권 우승 등 아마추어 시절부터 두각을 나타냈고 국가대표로 약 5년간 활동했다.

또한 2015년에는 소년체육대회에 전북 대표로 출전, 여중부 우승에 큰 역할을 했고 최우수선수로 선정되기도 했다.

김한별은 지난 2014년 전북 대표로 출전한 전국체육대회에서 개인전 공동4위 기록을 시작으로 허정구배한국아마추어 골프선수권대회 우승 등 성적을 내기 시작했고 국가대표 상비군이기도 했다.

우승컵을 들어올리고 있는 박현경(사진 왼쪽)과 김한별.

특히 박현경과 김한별은 지난 2017년 전국체육대회에 동반 출전해 전북골프협회에 종합우승이라는 큰 선물을 안겨줬다.

당시 박현경과 김한별은 개인전 2등을 기록했고, 김한별은 단체전에서도 활약을 펼쳐 단체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아울러 이들의 활약은 열악한 도내 골프 환경 속에서 실력을 쌓고 있는 어린 선수들에게도 신선한 자극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도내에서는 안해천(남원중)과 최영준(고창북고) 선수가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안해천은 지난 7월 열린 블루원배 제38회 한국주니어골프선수권대회에서 남자 중등부 우승을 차지했고, 최영준은 제24회 매경 솔라고배 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에서 생애 첫 우승을 이뤄냈다.

전북골프협회 강종구 회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속에서 박현경·김한별 선수가 활약을 펼쳐 대단히 고맙게 생각한다"며 "두 선수 모두 우승한 것은 전북 골프 역사로 기록될 것이며, 남은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것으로 기대하며 항상 응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각종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미래 주역들에게도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며 전북이 한국 골프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은성 기자

"코로나 극복에 써주세요"

태권도진흥재단, 전북 협회 방역 마스크 지원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이상욱)은 전북태권도협회(회장 최동열)에 KF94 마스크 5,000 장을 지원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김용 사업본부장과 최동열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방역 마스크 전달식을 가졌다.

최동열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태권도장이 힘든 가운데 방역 마스크를 지원해 줘 고맙다"며 "태권도진흥재단이 지원해 준 마스크는 도내 태권도 지도자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김용 사업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있는 관장·사범들에게 힘이 되고, 또 도장 내 방역 활동에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태권도진흥재단은 태권도 보급과 발전 등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전달받은 마스크는 도내 14개 시·군 태권도협회와 태권도 육성팀에 전달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펜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게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옥),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